

지역봉사단체 활동

우품 L&S(엘엘에스) 봉사단

도배봉사

우품 L&S 봉사단이 지난 8월 27일(토) 부암동지역의 김창옥 어르신택을 방문하여 도배와 장판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75세부터 13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봉사단원 13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임하였습니다.

점심식사 때 일명 뒷골오이로 불리는 아삭한 오이로 담근 맛있는 피클과 시원한 김치를 내어주시며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오히려 봉사단원들이 감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밥퍼봉사

또한, 지난 추석(9/12)에는 서울역에 위치한 노숙자쉼터인 "사랑의 등대교회"를 방문하여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아침식사 배식봉사를 하였습니다. 외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아직 어두운 이른 5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자녀들과 함께 나와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였다. "맛있게 드세요"를 연신 외치며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봉사단원들의 모습이 흐뭇하기만 하다.

밥퍼봉사와 함께 정성껏 마련한 추석선물인 과일과 음료를 담은 것을 돕기도 하였는데 센터 관계자 한분은 "우리끼리 했으면 한참 할 일을 이렇게 여럿이 하니깐 일을 금방 마칠수 있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라며 큰 웃음을 지었다. 새벽의 두 시간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전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의미를 새기게 된다.



우품 3주년 기념

CCM Artist

송정미 초청콘서트

Song Jung Mee Concert

• 일시 : 2011. 10. 23(주일)
PM 7:30

• 장소 : 우리가꿈꾸는교회 비전홀

• 문의 : 02-379-4137
010-3017-6848

CCM Artist 송정미

- 연세대 성악과 졸업
- '축복송' 작사 작곡가
- 제8회 극동방송 주최 복음성가 경연대회 대상
- 1998년~2009년 숭실대학교 음악원 교회음악과 주임교수 역임
- 현 컴패션, 다일, 굿피플 홍보대사
- 21C푸른나무교회 찬양사
- 극동방송 "지금 여기에" 진행

〈앨범〉

-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 복있는 사람은
- 이전보다 더욱
- Here & Now
- Anytime Anyplace
- "사랑하나라" 디지털 싱글
- 희망가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하셔야 자리를 배정받습니다.

• <http://songjungmee.org>

중국요리 락궁



☎379-5988

꽃담(미용실)



☎379-1160

뉴본분식점



☎3217-8508

세검정 관내에 일어나는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와 좋은 기사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체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품꿈꾸는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Fellowship Dream Church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39번지 / www.fdc.or.kr
☎ 02-379-4137, 010-4379-0191

무료 구독 문의 및 광고 접수
02-379-4137, 010-3017-6848



빌 게이츠가 들려주는 10가지 충고 5면



자녀교육 성공법 '분노를 다스려라' 6면



우꿈3주년기념 송정미초청콘서트 16면



제작 문의 02-442-0591 주소창 : 아름다운신문

우리가 꿈꾸는 세검정 아름다운신문

위대한 지역신문

2011년 10월 9일 / 제 2호 / 발행인 조기연
세검정아름다운신문 : 02) 379-4137

10월호

Cover Story

뽀식이 이용식의 신앙이야기

T. 아름다운신문
독자 분들께
이제
2011. 6. 29
기도 하여
산것을
기쁘게
나의 에너지!



70일 완성 기타교실

★ 제1기 저녁반 수강생 모집 ★

멋진 통기타 가수를 꿈꾸는
직장인과 학생을 위한

우꿈기타교실 저녁반이 시작합니다.

그냥 통기타 하나 메고 오시면 됩니다.

□ 2011년 10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8시 □ 회비 : 전액 무료 □ 교재비 : 1만원

▶ 우꿈기타교실 : 379-4137, 010-5238-8360 ◀



강사 허 경 수

• 수서청소년수련관 강사
• 문래청소년수련관 강사
• 은평문화예술회관 강사

우꿈 어린이 CGV

★ 세검정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좋은 영화상영 프로그램 ★

- 학교가는 토요일 방과후 1시
- 우꿈 어린이극장에서
-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영화를 상영합니다.
- 팝콘과 음료 등 다양한 간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부모님도 함께 오셔도 됩니다.

문의 010-3017-6848

[지역인사 칼럼]

무관심과 관심



정인찬 목사

백석신학교 학장
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 원장
성서대백과 사전 편저
툼슨 성경 편저

현대인의 특징은 개인주의와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상황윤리학자 조셉 플레처(J. F. Fletcher)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전철역에서 폭행을 당해도, 옆집에 도둑이 들거나 사람이 죽어도 무관심합니다. 나와 상관 없는 일들은 아예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거리개념이 아니라 관심의 개념입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은 많으나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참된 이웃도 없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Young)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창세기 1: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16절과 2:7절에 인간을 만드신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창조 하실 일에 관심을 가지시니라” 라고 주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 제사장 모두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며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라고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눅10:30-35)고 했는데,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푸자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 무관심하지 않고 돌보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

성경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하셨으니 이런 답이 나옵니다. “내가 나다”가 아니라 “너는 나다”로 이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웃은 많으나 참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있어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어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혼자 하와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있어 하와 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있어 교회가 있는 것같이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고, 부모님

이 계셔서 내가 있는 것 같이 이웃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학자 미이드 (G.H. Mead)교수는 ‘나는 너로부터 왔다’고 하였습니다. 출발이 내가 아니라 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딤후3:1-4)라고 예언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없고, 이웃 없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in you)라는 번역은 너무 협의적 번역입니다. 너희 안에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너희 가운데 (Among you)의미가 더 광의적이며,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원수였다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A와B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기주의에 빠져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돌보며,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만드는 것이요, 우리의 관계가 원수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랑의 관계요, 화해와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나라 같은 교회,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 하나님나라 같은 공동체, 하나님나라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화해는 천국을 이루는 필요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나라를 건축하는 통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집착



조 기 연

우리가꿈꾸는교회 담임목사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국장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부 종교단체환경정책실무위원장
사회통합위원회 종교지문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지문위원
민족화해협력위원회 대의원
평화나눔재단 사무총장

원숭이 잡는 법을 아십니까?
원숭이가 많은 동네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것은

먼저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 목에 원숭이의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은 둥근 통을 말뚝에 단단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담아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금새 냄새를 맡고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급기야는 통 안에 손가락을 넣어 작은 것을 하나 꺼내 먹어봅니다.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두 개, 그리고 급기야 그 맛에 환장한 원숭이는 구멍에 손을 넣고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 움켜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 발생합니다. 사냥꾼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숭이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도 통 안에 쥐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합니다.

결국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지요. 원숭이가 도망가는 법은 간단합니다. 통 안에 음식을 잡았던 손을 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놓지 못하여 결국 생명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생명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이

것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느 것에 늘 마음이 쏠리어 잊지 못하고 매달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집착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쓰지 싫어도 마음이 쓰이는 그것이 집착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온통 그 사람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어떤 물건에 집착하면 그 사람의 집과 주변은 그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착은 맹목적인 애착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때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적당한 집착은 꿈을 이루게 하는 열정과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인생의 집착이 아닌 하나님의 집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편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강한 집착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에 대한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동산을 선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아주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잘못가고 있는 인생들의 마음을 돌리시고자 열루고 야단치고 때리시며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 혼자서는 온전히 설수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5:8) 창조이후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내버려둘 만한 죄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외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거룩한 집착’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의 이야기

“자양강장제 박카X를 아시나요?”

박카X로 인해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다면 의아해 하시겠지요?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무렵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박카X를마시며 심신을 달래주곤 하였습다. 그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박카X를 사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 박카X를 마셔야지 손에 붓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박카스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손에 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절에서 알려준 옹한 의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진찰 받아봐요.” “아~, 이제는 정신병원에 가야 하겠구나” 하는 낭패감에 섣뚱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말을 바꾸어 다시 얘기했습니다.

“참!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쉽게 나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교회를 가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싶었지만 마음에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만일 그럴 경우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불안해진다는 생각에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성산동에 있는 친구 교회에 갑시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꼬옥, 주일을 지키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어 달이 흘렀습다.

다. 특별히 기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정신적인 곁함을 치료하셨다는 마음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자 성산동의 교회에서 집 근처 교회로 옮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들어갈 때 맘과 나올때 맘이 다르다고 했던가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마음도 평안해지니 교회 보다는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날은 주보에 대표기도 순서에 제 이름이 있는 것에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아침, 원망스러워하는 아내의 눈빛을 뒤로 한 채 저의 수공예 작업장이 있는 고양시 공장단지로 도망치듯 향하였습니다. 납품기일을 마치기 위함도 있었기에 열심히 작업을 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오후예배라도 가자” 서둘러 예배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작업장의 문을 잠그고 나와 조금 걷고 있는 데 뒷편에서 ‘불이 났다’며 웅성거리고 분주한 발걸음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막 내가 나온 작업장에 불길의 널름널름 담을 타 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자재들과 화공약품들은 아름다운 불꽃을 내며 화염 속에 휩싸였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일 오후 예배에 참석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불로 인해 손해 본 것을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자칫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흘릴 눈물조차 모두 저 화마 속에서 증발해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의 뒷수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정말 멀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께 찾아간 길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영혼뿐이 아닌 나의 생명도 살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집 냉장고 한 칸에 그 때 손에 쏘아 부었던 박카X가 저를 보고 미소짓고 있습니다.



백광현

꽃을 꽃으며 꾸는 꿈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십시오.”

힘주어 외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며칠 째 답답하게 했다.

나의 꿈은? ... 어느 목요일, 요셉의 꿈 기도모임 설교시간 내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전꽃꽂이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나는 재주도 없고 능력이 되질 않는 데...’ 하는 두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시간을 갖고 배워 실력이 갖추어지면 감당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사모님과 함께 몇 주 후 추수감사주일부터 강단 꽃꽂이를 시작하게 하시고 강단 꽃꽂이가 주님을 향한 여러 꿈 중 하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도하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 나아가니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꽃꽂이가 진행되었다. 여러 일로 바빠 잠이 모자라도 꽃꽂이 하는 금요일은 새 힘이 솟아났고 즐겁고 행복했다.

신년 예배에는 소나무, 대나무, 극락조화를 이용하여 신년의 꿈을, 고난주간에는 가시나무로 고난의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표현하고 붉은 장미로 예수님의 피뎀을 표현했다.

부활주일에는 기쁨과 순결의 흰색 꽃으로 표현하고 달걀바구니를 꾸며 주변상가에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조, 수수, 벼를 이용하여 초가를 세우고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주신 밤, 대추로부터 과일, 쌀, 무, 배추, 늪은 호박 등등으로 장식해 주님께 감사했다. 또한 성탄절에는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화려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금색과 은색의 소재들과 포인세티아로 장식했다.

절기마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을 대하여 사모님과 마음을 맞추고 꽃의 모양도 맞추어 나갔다. 이번 주 꽃꽂이의 제목이 무엇이나 물으셔서 늘 긴장하게 만드는 집사님부터 휴대폰에 담아 간직하시는 권사님, 바쁠 때면 소매를 걷고 뒷정리를 도와주시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기도와 격려와 도움으로 어느새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예배시간마다 강단의 꽃꽂이가 쉼없이 눈에 들어온다. 주님께 영광이요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꿈을 꾸어본다. 많은 자원자들로 여러 팀의 ‘꽃꽂이 봉사팀’이 세워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 날도 멀지 않았으리라.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기대한다.

〈임선미〉

우리가 꿈꾸는교회는

예배안내

- 1) 세검정 지역의 기도 회복 운동을 시작으로 기도가 살아있는 민족공동체
- 2)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국가공동체
- 3) 그리스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신앙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울타리입니다.

담임 조기연 목사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39번지
홈페이지 : www.fdc.or.kr
☎ 02-379-4137, 010-4379-0191

예 배	시 간
새벽 주님과와의 만남	새벽 5:30
축복과 영광의 예배	주일 낮 11:00
찬양과 감사의 예배	주일 밤 7:30
거룩한 동행의 예배	수요 밤 8:00
우품어린이예배	주일 낮 2:00
우품청소년예배	토 요 일 4:00
요셉의 꿈 기도모임	목요일 밤 9:00
안 나 기 도 운 동	금요일 밤 11:00
우품어린이극장	1·3주 토 1:00

